

자동차 판매 내수 늘고 수출 줄어

국내 완성자동차 5개 업체의 지난달 자동차 내수판매는 증가했지만 수출은 전달에 이어 계속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는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 연장, 신차 효과와 판촉 활동 등의 영향으로 내수판매가 늘었지만 수출시장은 신형시장을 중심으로 한 성장둔화와 환율 변동에 따른 불확실성 증대 등 어려운 시장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한국GM, 쌍용자동차, 르노삼성자동차의 3월 국내의 판매량은 79만4505대로 전년 동월 80만2062대와 비교해 0.94% 감소했다. 내수판매 14만8848대를 기록해 전년 동월 12만7216대 대비 17.0% 증가했다. 반면 해외판매는 64만5657대를 팔려 같은 기간 67만4846대보다 4.32% 감소했다.

내수판매 증가에는 각 업체 주력모델의 인기가 큰 영향을 미쳤다. 현대차는 지난달 총 43만2878대를 판매해 전년 동월 대비 0.9% 감소했다. 내수판매와 해외판매는 각각 6만2166대, 37만712대를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국내판매는 7.2% 증가, 해외판매는 2.2% 감소했다.

차종별로는 아반떼가 8753대 팔려 내수 판매 증가세를 이끌었다. 다음으로 쏘나타 7053대(하이브리드 536대 포함), 그랜저 4550대(하이브리드 544대 포함), 엑센트 1735대 등 전체 승용차 판매는 총 2만4197대다.

제네시스는 DH가 3289대, EQ900가

3월 개소세 인하·신차 효과 국내 14만8848대 17% ↑

환율 변동 불확실성 증대 해외판매 64만대 4.3% 감소

■ 국내 완성차 5개사, 3월 판매실적 및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단위:대, %)

업체	내수	증감률	수출	증감률	내수+수출	증감률
현대차	6만2166	7.2	37만712	-2.2	43만2878	-0.9
기아차	5만510	19.4	21만7726	-7.1	26만8236	-3.0
한국지엠	1만6868	27.6	3만9276	-4.4	5만6144	3.4
쌍용차	9069	17.5	3941	-23.5	1만3010	11.0
르노삼성	1만235	70.5	1만4022	-8.7	2만4237	13.5
총계	14만8848	17.0	64만5657	-4.3	79만4505	-0.9

3570대 등 총 6859대가 판매됐다. SUV는 싼타페 7245대, 투싼 5202대, 맥스크루즈 1126대 등 전년 동기보다 20.8% 늘어난 총 1만3573대를 기록했다.

해외판매는 국내공장수출 10만252대, 해외공장판매 27만460대 등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 감소했다. 그러나 2월과 비교해 국내공장수출은 50.6%, 해외공장판매는 22.5% 증가했다. 전체적으로 29.0% 증가하는 등 최근 이어오던 해외판매 감소세를 큰 폭으로 줄였다.

기아차는 지난달 국내 5만510대, 해외 21만7726대 등 총 26만8236대를 판매했다. 전년 동월 대비 3.0% 감소했다. 국내 판매는 전년 동기 대비 19.4%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지난해 6월 기록한 26.8%

증가율 이후 최대치다. 신형 K7이 큰 인기를 얻으며 구형 모델 포함 총 6256대 판매돼 2009년 12월 1세대 모델 출시 이후 역대 월간 최대 판매 기록을 두 달 연속으로 경신했다.

스포티지, 쏘렌토, 카니발 등 기아차의 주력 RV 차종들 판매도 전년 동월 대비 26.5% 증가했다. 쏘렌토는 전년 동기 대비 10.0% 증가한 7611대가 판매돼 3월 최대 판매 차종에 올랐다.

해외 판매는 지난해와 비교해 국내공장 생산 분이 국내 판매 증가에 따른 물량감소와 글로벌 경기의 지속적인 위축으로 전체적으로는 전년 동기 대비 7.1% 감소했다.

스포티지는 지난달 4만8541대가 팔려

기아차 해외 판매 차종 중 최대 실적을 올렸다.

한국GM은 지난달 총 5만6144대를 판매했다. 내수판매는 1만6868대로 전년 동월 대비 27.6% 증가했다. 2002년 회사 출범 이래 최대 3월 실적이다. 신형 스파르카 9175대나 팔려 전년 동월 대비 무려 87.7% 늘었다. 수출은 3만9276대를 기록해 전년 동월 대비 4.4% 감소했다.

쌍용자동차는 지난달 내수 9069대와 수출 3941대를 포함해 총 1만3010대를 판매했다. 전월 대비 23%, 전년 동월 대비 1.1% 증가했다. 지난해 초 출시된 티볼리에 어가 티볼리와 동반 상승세를 기록하며 내수 판매 성장을 주도했다. 티볼리와 티볼리 에어는 판매가 전년 동월 대비 69.7% 증가하며 동반 상승세를 보였다. 수출은 전월 대비 9.7% 증가했다. 신형국가들의 수요감소 영향으로 전년 동월 대비로는 23.5% 감소했다.

르노삼성은 지난달 총 2만4237대를 판매했다. 전년 동월 대비 13.5% 성장했다. 2010년 이후 6년 만에 3월 내수판매 1만대를 넘어서는 실적을 올렸다. 1만235대로 전년 동월 대비 70.5% 증가했다. 지난해에 출시한 SM6가 6751대로 가장 팔렸고 SM7와 QM3도 판매 증가세를 보이면서 실적을 견인했다. 수출은 1만4002대를 기록했다. 전년 동월 1만5343대 대비 8.7% 감소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올 뉴 K7 구매 고객 클래식 공연에 모십니다”

기아차 ‘스트라디바리 콰르텟’ 내한공연 초대

기아차는 오는 27일 예술의 전당에서 열리는 ‘스트라디바리 콰르텟’ 내한공연에 올 뉴 K7 구매 고객을 초청한다고 4일 밝혔다.

스트라디바리 콰르텟은 세계 3대 명연악기인 스트라디바리우스를 수집해 스위스의 하비스트이팅거 수단이 취리히를 거점으로 활동하는 음악가들을 엄선해 구성한 현악 4중주단이다.

첫 내한공연인 이번 무대에서 스트라디바리 콰르텟은 모차르트 현악 4중주 21번과 바버 현을 위한 아다지오를 연주하며 스위스 취리히 음악원 부

총장인 피아니스트 허승연과 슈만 피아노 5중주를 협연한다.

이번 공연 관람을 원하는 올 뉴 K7 구매 고객은 오는 19일까지 전화(1833-8963) 또는 문자(013-3362-1945)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기아차는 응모 고객 중 361커플을 추첨해 개별로 당첨 안내할 예정이다.

기아차 관계자는 “올 뉴 K7 고객을 위해 특별하게 기획된 이번 행사는 K7만의 프리미엄 감성에 어울리는 명품 행사”라며 “고객들을 향한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고자 특별한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현대차 ‘제네시스 EQ900’



기아차 ‘뉴 K7’

내년부터 대형승합차·화물차 비상자동제동장치 의무화

국토부 법개정안 입법예고

내년 1월부터 출시되는 대형승합차와 화물차에 차로이탈경고장치(LDWS) 및 비상자동제동장치(AEBS) 장착이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부령)’ 일부 개정안을 입

법 예고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차로이탈경고장치는 운전자의 졸음운전 등으로 자동차가 주행차로를 벗어나면 운전자에게 경고하는 장치이다. 비상자동제동장치는 주행 중 전방충돌 상황을 감지해 차량을 자동으로 멈추게 하는 장치이다. 국토부는 차체 길이가 11m를 초과하는 승합자동차와 총중량이 20t 이상인 화물·특수자동차에 이들 장치의 장착을

의무화한다.

김용석 국토부 자동차관리관은 “자동차 첨단안전장치 의무장착을 통해 교통사고 요인의 90%를 차지하는 운전자 과실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장착 추이 등을 반영해 의무장착 차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아울러 캠핑용 자동차의 전기설비에 관한 안전규정도 이번 개정안에 포

함했다.

캠핑카가 외부 전원을 접속하는 부위에 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충전기 과부하 보호기능을 갖춰야 한다.

이밖에 국토부에서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허가를 받은 차량은 자동차로 유지, 자동차선변경, 자동차 기능 등 ‘자동차명령조항기능’을 시속 10km 이상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특례를 마련한다.

일반 차량은 자동명령 조항 기능을 시속 10km 이내에서만 사용하도록 제한돼 있다. /연합뉴스

온·오프라인 자동차매매업체 상생 모색

민관협의회 첫 회의

온·오프라인 자동차매매업체가 상생할 방안을 찾는 민관 협의회가 지난 1일 첫 회의를 열어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다

다고 국토교통부가 4일 밝혔다. 김용석 국토부 자동차관리관이 팀장인 협의회에는 신현도 한국자동차매매연합회 정책위원장 등 매매업계 관계자, 한국교통연구원 황상규 전 종합교통본부장 등 전문가, 김성천 한국소비자원 선임연구위원 등 시민단체 인사가 참여한다.

협의회는 온라인 자동차 매매제도를 개선하고 오프라인 자동차매매업계의 애로사항을 해결할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온·오프라인 자동차매매업체 사이 갈등은 작년 당정협의회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이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통과하면서 시작했다.

당시 통과된 자동차관리법은 온라인 자동차 매매제도 주차장(3300㎡ 이상)과 견매실(200㎡ 이상), 차량성능점검·검사 시설(50㎡) 등을 갖추도록 했다. /연합뉴스

이에 서울대 학생들이 창업한 온라인 중고차 매매회사인 ‘헤이딜러’가 폐업을 선언했고 정부와 국회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짓밟았다”는 질타를 들었다.

당정은 이후 온라인 자동차 매매업계의 시설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불법행위를 벌인 중고차 판매자에게 ‘삼진아웃제’를 적용하는 등 ‘중고차 거래 선진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온라인 자동차 매매업 제도에 애초부터 반대한 오프라인 자동차매매업계의 반발은 계속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오프라인 자동차매매업계 관계자들을 매일 찾아가 설득한 결과 오프라인 자동차매매업계도 협의회에 참여하게 됐다”며 “온라인 자동차매매업계를 대표하는 헤이딜러 쪽 인사도 참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협의회는 6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국토부는 협의회에서 합의한 사항을 토대로 자동차관리법 개정 등 자동차매매업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유한회사 제이앤와이 도시개발은 NPL(부실채권) 채권매입, 매각, 중개, 경락잔금대출, 질권대출 & 부동산 컨설팅 등을 원스톱으로 처리하고 있는 부동산 전문기업입니다.

NPL 관련업무를 원스톱으로!

- NPL매입 • NPL매도 • NPL중개 • NPL질권대출 • 경락잔금대출 • NPL등기업무

NPL 투자는 채권 투자다. 은행 등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해준 대출이 부실화할 때를 대비해 설정해 둔 “근저당권”을 거래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부실채권거래가 경매보다 수익성이 높으며 NPL 대박은 무량물건 선별이 중요하며 경매보다 한 발 앞선 부실채권을 노려보는 것이 월등한 수익을 창출 합니다.

NPL(근저당권)투자는 ?

- * 안전한 투자를 원하시는 분
- *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소유하지 않고 단기적으로 고수익을 올리고 싶으신 분
- * 경매에 입찰하여 100% 낙찰 받고 싶으신 분
- * 양도소득세나 이자소득세가 부담이 되시는 분
- * 상가,공장,토지,숙박시설등을 반드시 낙찰받고 싶으신 분

광주지역 추천물건 외 다수 물건 확보 되었으며 전국 특수물건 취급 가능

[법률자문업무협약 법무법인 지산]

전국 최대 우량 NPL 보유

NPL파트너스는 하나/기업/현대스위스/솔로몬 등 다수의 금융기관 담보부 NPL매입, MG질권대출협약, JB캐피탈 NPL사업협약, 담보부 NPL 수익계약 매입/중개 4000억원 돌파, 수협중앙회 NPL 질권대출 수탁법인 승인된 NPL전문기업입니다.

경매 개시 이전, 이후 금융권 근저당권 채권, 개인 가압류채권 후 순위 근저당권, 가압류 채권 매입합니다.

NPL매입,중개,질권대출 담당
경매경락잔금대출 지원담당

☎ 062-383-4987
본부장 010-4557-3034
이 사 010-2170-3034

유한회사 제이앤와이도시개발

사업자등록번호 435-87-00319 / 법인등록번호 200114-0062461